

서 평

Robert W. Fogel and Stanley L. Engerman, *Time on the Cross: The Economics of American Negro Slavery*, Little, Brown and Company, 1974

Eugene Genovese, *Roll Jordan Roll: The World the Slaves Made*, Vintage Books, 1976

Herbert Gutman, *The Black Family in Slavery and Freedom*, Vintage Books, 1976.

노예와 가족

최재인

‘노예가족’이라는 말은 모순이다. 미국의 흑인노예는 부모 혹은 배우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조건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노예가족’은 노예의 삶과 노예제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었다. 노예는 가족과 친족의 끈에 기대어 힘든 생활을 견디어 나갔고, 특히 18세기 중반 이후로 대부분의 노예는 가족을 통해 재생산되었다. ‘노예가족’이라는 주제는 사람이면서도 거의 법률과 제도상으로는 가족에 가까웠던 노예의 모순된 처지를 이해하는 데 좋은 매개가 될 것이다.

미국 노예가정에 대한 연구는 현대 흑인 문제의 기원을 찾아보고자 하는 현실적 필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연구의 선두에 섰던 사람은 프래지르(E. Franklin Frazier)였다. 프래지르는 『미국의 흑인가족(*The Negro Family in the United States*, 1939)』이라는 책에서 현대 흑인 문제의 기원은 노예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예제가 흑인 남자를 무력한 존재로 만들었으며, 일종의 모계제 사회를 형성하여 여자 가장이 많이 생겨나게 했고, 가족의 유대감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1960년대 말까지 흑인 노예 가족을 설명하는 유력한 틀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노예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노예가 통념보다는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등장하였고, 현재는 그 주장이 노예 가족사 연구의 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대표적인 책으로는 포겔(Robert W. Fogel)과 엔저만(Stanley L. Engerman)의 *Time on the Cross: The Economics of American Negro Slavery*(1974)와 제노베이지(Eugene D. Genovese)의 *Roll Jordan Roll: The World the Slaves Made*(1976), 그리고 구트만(Herbert Gutman)의 *The Black Family in*

Slavery and Freedom(1976)을 들 수 있다. 이 책들이 기존의 연구에 대해 비판하는 바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20세기 흑인 가족문제라는 현재적 관점에서 노예 가족을 바라봄으로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흑인들은 대거 북부 도시로 이주해 갔다. 도시에서 여자는 하녀 등의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남자는 인종차별과 도시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했던 탓으로 취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흑인 가족 내에서 여자 가장이 많이 등장했다. 그래서 도시와 남부 농촌의 흑인가족을 비교해보면 노예제 시대의 전통이 비교적 더 많이 유지되고 있는 남부 농촌의 가족이 형태나 유대에 있어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 흑인 가정의 문제는 노예제의 유산 때문이 아니라 20세기 미국 도시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지적하는 문제는 기존 연구가 법과 제도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실제 노예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만 보면 노예는 거의 아무 권한도 갖고 있지 못했으며, 가족을 갖는 것도 주인의 묵인에 따른 것이지 법과 제도로 보장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법과 제도 대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노예 역시 이성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노예가족은 법과 제도상으로는 별 의미가 없지만 노예의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이 세권의 책은 노예가족의 동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상이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검토하면서 노예는 어떻게 가족을 형성, 유지했으며, 노예의 삶에서 가족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는지의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위 책들은 노예제 사회 전체를 그려내고 있는 책들이지만 이 글에서는 노예 가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노예주의 경제적 이윤 추구를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보는 경우 — 포겔과 엥거만

포겔과 엥거만은 노예 가족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노예주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가정이 안정될수록 출산율이 높고 노예가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율은 노예주의 재산증식에 크게 기여하는 요소였다. 가임기 여자 노예의 가격은 여자 노예가 농장 노동에서 생산해내는 가치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그 이유는 노예 소유주가 출산이 가져올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종래에는 백인 주인이 남녀 노예를 강제로 결합시켜 마치 짐승처럼 노예를 번식시켜려 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포겔과 엥거만은 그런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문란한 남녀관계가 번지면 성병 등도 함께 번져 오히려 출산율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안정된 가정이 유지되게 해줌으로서 노예의 양육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노예주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서 노예의 가정을 안정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설득력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예주가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과 노예가 실제로 안정감을 느꼈는지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포겔과 앵거만은 노예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했다는 근거로 노예주가 여자 노예를 함부로 강간하는 일이 드물었다는 주장을 한다. 법적으로는 주인이 노예를 범해도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실제 그런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당시 혼혈인의 비율에 기초한 것이다. 1850년 조사에 따르면 혼혈인의 비율은 7.7%였다. 이는 흑인이 북미대륙에 건너오기 시작한 것이 1620년이었고, 1850년은 노예제가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아주 소수라는 것이다. 또한 여자 노예를 강간하는 것은 노예 소유주가 가지고 있던 차별성과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를 침해함으로써 권위의 기초를 허물어버릴 위험성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흑인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바라보았던 노예 소유주는 여자 노예에 대해 성적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자 노예에 대한 강간이 드문 일이었는지는 좀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실제 강간이 드물었기 때문에 노예 가정이 안정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성폭력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회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자들은 위협을 느끼는 실정인데, 여자 노예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어떤 법적 규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노예들이 안정감을 갖고 있었을까? 게다가 노예주가 경제적 이익과 흑인에 대한 인종적 반감때문에 노예 가정을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려 했다고 해도, 그것은 조건에 불과하다. 노예가족을 꾸리고 유지하는 당사자는 노예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노예소유주의 지배 전략과 노예의 자기 삶에 대한 욕구가 만나는 장으로서의 노예가족 — 제노베이지

제노베이지는 노예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예 소유주와 노예가 가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노예 소유주는 노예 내에서 결혼과 가족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노예 소유주는 그것을 통제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한 노예 소유주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노예가 아내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식만큼 노예를 농장에 묶어둘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노예에게 ‘부부사이를 갈라놓겠다’던가 ‘자식을 팔아버리겠다’는 협박보다 무서운 것은 없었다.

제노베이지는 노예 소유주가 노예가족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 의사를 펼치는 근거를 경제적 동기보다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찾고 있다. 1854년 버지니아의 한 노예주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노예를 팔기보다는 토지를 파는 것을 택하면서 “흑인이건 백인

이건 간에 내 식구들 모두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나의 큰 행복이다"라고 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노예주는 노예가족이 함께 사는 것을 지켜주지 못하면 아주 부끄럽게 여기면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는 특히 대농장 주일수록 심했는데, 식민지 시대부터 유지해온 가문의 단합을 유지하는 것은 명예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前)노예의 증언에 따르면 어린 노예를 팔아야 할 경우에는 가능한 가까운 곳에 팔아 부모가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노예를 구매할 때에도 손해를 무릅쓰고 배우자까지 함께 사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노예제 말기에 가면 법적으로는 노예 가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노예 가족을 무시할 수가 없어 몇몇 주에서는 노예 가족을 보호하려는 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어린아이와 임마를 분리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효력을 발휘했던 것은 루이지애나에서 뿐이었다. 한편 법으로는 아니지만,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노예주가 노예가족을 해체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에는 노예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노예 소유주에게 신용을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가족을 이루고 사는 노예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다른 한편으로는 노예가 가족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노예제 아래서는 상당히 모순되는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노예주와 노예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농장주에게 있어 가족은 노예까지를 포함하여 농장 내의 모든 식구를 의미했다. 그들에게 있어 백인적계 가족은 자신과 똑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가족이었고, 흑인노예는 열등한 가족성원이었다. 이는 mother라는 호칭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노예 아이들이 자신의 생모가 아니라 농장의 여주인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했다. 농장주들은 항상 농장 내의 모든 성원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가정임을 강조했다. 이런 가부장적 온정주의는 한편으로는 노예들을 다루기 위한 지배수단이기도 했지만, 한편 노예에게는 자신들이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노예들은 노예주가 제공한 이런 가족공동체라는 조건 속에서 흑인들 고유의 가족생활, 가족관계, 나아가 고유의 문화를 발달시킬 수 있는 여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제노베이지에 따르면 당시 가족이라는 공간은 노예주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노예들이 고유의 힘과 문화를 키우고자 하는 노력이 교차하는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노예가족은 무엇보다 노예들의 절박한 필요에서 나온 것 — 구트먼

노예주가 불안하나마 조건을 제공해주었다고 한다면, 그 가족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유지해 나간 것은 당사자인 노예였다. 노예가 가족에 대해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

가 하는 예는 도처에서 찾을 수 있다. 도망 노예의 동기를 조사해보면 징벌에 대한 반발과 두려움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팔려간 가족을 찾기 위해서였다. 도망 노예를 찾기 위한 포스터 아래에는 도주 이유가 적혀있었는데, 그 중 1/3은 가족을 찾기 위해서였다. 또한 노예 경매시장에서는 “나를 사가려면, 제발 내 가족까지 함께 사주시오”라고 큰 소리로 울며 호소하는 노예를 흔히 볼 수 있었다. 노예의 가족에 대한 애정은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직후에 나타난 현상들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방이 되자 많은 흑인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결혼신고를 하였다. 노예로 있던 농장을 떠날 때에는 가족단위로 이주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흑인부모는 자녀를 백인의 도제로 보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한 그런 선택은 피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흑인이 노예매매 등으로 이별했던 가족을 찾기 위해 남부 땅을 방황하였다. 이런 것을 볼 때 노예들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족을 이루어 살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구트먼은 서술에 있어 무엇보다 노예 내부에 시선을 집중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당시 흑인 노예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흑인 노예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트먼은 노예의 성과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산업시대의 그것과 유사했다고 주장한다. 구애의 일과정으로서 혼전관계를 당연시 한다던가, 임신과 함께 결혼생활이 주변에 공식적으로 알려져 임신 후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를 두고 당대의 많은 백인들은 노예들이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구트먼에 따르면 그런 평가는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백인들이 볼 때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으며, 노예주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 갈라질 수밖에 없는 흑인 노예의 결혼은 별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백인의 관점에서 볼 때 노예는 도저히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존재였다.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다 할 수 없고,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조건에서 가족이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백인들의 생각이었다. 백인 농장주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노예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했지만, 노예들이 실제로 책임있는 가정 생활을 할 것이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예의 결혼 생활이 무책임하고 문란한 것은 아니었다. 백인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지는 못했지만 노예에게도 일단 임신을 하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그에 걸맞는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를 가하는 것이 있었다. 친족 공동체가 바로 그것이었다. 노예 남녀가 결혼을 하면(엄밀한 의미에서 주인과 주변 노예로부터 허락, 혹은 묵인을 얻고 동거 생활에 들어가면), 흑인 공동체로부터 부부는 상호 충실할 것이 요구되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흑인 감리교회는 결혼한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3개월의 구금에 처하기도 하고, 같은 죄를 두번 저질렀을 경우엔 6개월 동안 구금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조지아의 한 흑인 공동체에서는 부정한 짓을 저지른 여자에게는 그 행실을 고치기 위해 노래로 야유

를 보내 경고하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노예들의 고향인 서아프리카에서 가져온 전통이었다.

노예는 많은 경우(65%)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단위로 살았지만, 그것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친족관계 내에 놓여 있었다. 형제뿐 아니라 사촌과 그리고 삼촌, 이모 등과도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과부가 되어 나이가 들면 조카에게 의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길 정도였다. 이는 노예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예 가족은 매매 등을 통해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만약 아이만 혼자 남게 된다면 숙모나 이모가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 당연하고 흔한 일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노예들은 친족관계를 넘어서게 되더라도 그와같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가상의 친족관계를 형성해내기도 했다. 같은 농장, 혹은 친척이 있어 약간의 유대라도 있는 농장의 노예일 경우, 어른에게는 aunt, uncle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그보다 어릴 경우 brother, sister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어떤 어려운 처지에 놓이더라도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라는 의미였다.

구트먼은 노예가정을 노예주의 가정을 모방한 것 혹은 노예주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에 반대한다. 노예주가 노예 가족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조건일 뿐이다. 실제 가족을 만들고 유지해 나간 것은 노예들 자신의 믿음과 문화였다. 그 증거의 하나로 '사촌 간의 결혼' 문제를 들 수 있다. 당시 남부 농장주들 사이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금기시하는 풍토가 없었으며 오히려 가문의 결속력을 높여준다고 하여 장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예들은 사촌 사이의 결혼을 금하였다. 이는 서아프리카에서부터 가져온 전통이기도 했고, 이런 금기는 자연히 결혼을 다른 농장,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과 하게 만들어 노예 친족공동체가 광범한 농장과 지역에 걸쳐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예 공동체는 노예들이 고유의 힘과 문화를 비축하고, 노예주로부터 도망한다면가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노예 가족의 빛과 그림자

노예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의 운명을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외부의 노예주가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노예들이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라고는 노예라는 신분뿐이었고, 가르쳐줄 것이라고는 소수의 장인을 제외하고는 농장에서 일하는 법과 노예주에게 음으로 양으로 저항하는 방법뿐이었다. 노예가족은 그 구성원을 보호해줄 힘을 갖지 못했다.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한 백인 감독관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를 살해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어느 남자 노예의 이야기는 가족의 보호를 위해 나서는 순간 붕괴되고 마는 노예 가족의 한계를 분

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 노예가족은 노예들에게 사는 힘을 주는 안식처이기도 했다. 전(前)노예의 증언에 따르면, 어느날 농장에서 못된 농장주에게 저항하는 방법을 논의하던 중 집단자살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그것에 모두들 동의하여 집단자살을 결의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아이들을 보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한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식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었다는 것이 고된 노예 생활을 견디게 해주는 큰 힘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해주는 이야기이다.

가족이 개인과 사회에 대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은 계속 변화해 왔지만,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중요한 사회적 기능은 계급과 계층의 재생산, 즉 사회 자체의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산과 상속에 대한 연구는 가족사 연구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 왔으며, 재산의 정도와 상속제도는 부모와 자식관계, 부부관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의 구실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산을 가질 수 없는 노예가족연구에서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다. 노예가족에서 중심 문제는 가족을 가지는 것이 어렵고, 가족을 이루더라도 그것이 자신과 같은 노예를 양산하게 될 뿐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족을 유지했던 노예들에게 '가족이란 무엇이었는가' 라는 문제이다. 노예가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더 진행된다면 현재 유행하는 가족사 연구의 흐름이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재인, 서울대 서양사학과 박사과정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서양사학과

Tel.: 7404-540(O)